

중기 해외시장 진출 탄력

전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 발족... 위원 12명 위촉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가 발족되어 도내 수출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전북도는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견인할 '전라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12명의 위원(위원장 : 도 정부부지사)을 위촉했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수출 진흥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전라북도에서 하반기에 수립할 중장기 수출종합계획에 대한 자문으로 협의회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전북도내 수출은 4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6월 수출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7.8%로 2012년 2월 이후 최고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는 시기에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출협의회가 발족되어 도내 수출지원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시장 다변화 등 수출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 진흥 정부부지사는 해외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기업도 우수한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수출지원협의회의 몫이라고 강조하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2부 행사에는 미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전양피앤비(주)', 미동계어, 대영엔지니어링(주), (유)원진인빌, (주)티앤지 등 중소기업 5개사를 선정하여 '글로벌 우수기업' 지정서를 수여했다.

글로벌 우수기업은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우수 기술

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미국 현지 마케팅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현지 비즈니스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8월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올해 5년차인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사업은 글로벌 우수기업 총 49개사를 선정하여 글로벌 역량을 지속적으로 지원한 결과, 수출 290만 불, 신규 바이어 516개사 발굴, 협약 체결 인증 취득 46건의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진흥 정부부지사는 글로벌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5개사를 격려하며,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 전북기업이 협소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세계로 진출하여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지난 21일 김일재 행정부지사를 비롯하여 청원 200여명이 지난 7월 6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익산시 망성면 하우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를 하였다.

'청문회 불출석' 9월 1일 첫 재판 열린다

안봉근·이재만 등 11명,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무더기 출석 예정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피고인 11명의 첫 재판이 오는 9월1일 열린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본인이 원래 받고 있던 재판에 사건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병수 판사는 오는 9월1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우선 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 발 회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주(38)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51)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9일~지난 1월2일 사이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 등 11명의 첫 공판을 연다.

개입, '정유라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열리는 재판은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들과 함께 기소된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리는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사건이 병합됐다. 우 전 수석은 본인의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

전북 자동차산업 새 전환점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서 전략 제시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2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전북도 유희숙 경제산업국장과 도의회 이학수 농산업경제위원장과 박재만 도의원, 이성수 자동차융합기술원장, 새만금개발청, 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교통대학, 상용완성차기업 등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 상용차 자율주행산업 육성 방향과 정부정책 반영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와 산업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계 상용차 산업의 환경변화와 자율주행 상용차의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북 자동차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회 전환 및 대안산업 육성 대책 마련에 노력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 산업연구원은 전라북도 상용차 산업의 세계 4강 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기본방향에 따라 글로벌화, 스마트화, 친환경화, 고 안전·편의화 등 4대 목표를 제안했다.

또한 기존 상용차 산업의 기본 역량 재점검, 생산효율성 제고 및 혁신역량 강화, 전기동력 가속화 및 자율주행화 선도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4개 세부 전략을 제안했다.

연구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이항구 박사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 중심의 개인 운전자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전북 상용차산업 생태계의 재조성이 필요하다"면서 자동차산업의 연관산업간 다중융합(Trivergence)을 위해 개방과 협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통합 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연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4차산업 테스트베드 도입을 위해 조기 실현이 가능한 아이템 발굴 및 국가사업화 실현을 위한 상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전북도는 오는 8월까지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으로 정부에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동해안 대표 오징어 옛말

전북 서해안도 어장 형성

전북도는 21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가 서해안 지역에서도 어장을 형성하여 올해도 7월 15일 첫 어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징어는 우리나라 전연안, 동중국해, 황해에 분포하며, 겨울 1~3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 총 3회에 걸쳐 산란하고 수명은 1년이다.

서해안 지역의 오징어 출현은 멀리 등 먹이를 따라 회유하는 시점에 나타나며, 어장은 7월중순~9월 말까지 유지되고, 현재 전남 흑산도 북방, 부안 왕등도 서방, 군산 어정도 북서방~충남 격렬비열도 서방에서 어장이 형성되어 근해채낚기어선 150여척이 조업 중에 있다.

조업 중인 근해채낚기어선은 전북 타지역(강원도, 경상도, 제주도) 어선으로 오징어 회유에 따라 우리나라 전역을 이동하면서 조업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은 7월 18일 현재 위관량 44톤, 2억5000만원 위관고를 올리며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다.

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현재는 어장형성 초기로 유동적이지만 기상조건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도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준비 분주

전북도는 ECO융합섬유연구원과 공동으로 올해 10월 28일 개최 예정인 '제6회 한지섬유 패션디자인경진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친환경 기능성 소재인 한지사면 섬유에 대한 디자인개발 및 상품화를 촉진시키는 1차 스타일화 심사를 마치고 21일 밝혔다.

1차 스타일화 심사는 섬유패션 관련 업계와 학계의 전문심사위원들이 실용성과 상품화 가능성, 심미성, 독창성, 소재 응용 및 표현력 등 엄정한 심사를 통해 70점을 선정, 심사위원들

은 앞으로 경진대회를 통한 한지섬유 패션디자인의 실용화가 더 기대된다. 이번 스타일화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실물의상을 제작할 수 있는 한지사면 니트 직물 데님 원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는 10월 28일에 개최되는 익산 국회축제 패션쇼에서 심사를 통해 진행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전라북도지사상 등의 상장과 상금 1,800만원이 수여된다.

ECO융합섬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지사면 섬유에 대한 상상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 섬유 기업체와 연계하여 한지사면 섬유의 실용화와 사업화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를 통하여 전북이 한지섬유산업 활성화 및 대한민국 수부사제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6회 한지섬유 패션디자인경진대회 1차 스타일화 심사결과에 대한 발표는 홈페이지(www.kictex.r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